

박근종 칼럼 온기 없는 성장 그늘에 '삶의 만족도' 6.4점, OECD 33위로 최하위권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는 선진국인데, 삶의 질은 후진국으로 온기 없는 성장의 그늘에 짙게 드리운 안운(暗雲)의 그림자만 고립사회의 골을 깊게 파고든다. 대한민국이 걸음으로 풍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신음 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특히 사회의 허리인 40대 중년층의 만족도가 최근 들어 뚜렷하게 하락한 점이 눈길을 끌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深化)하며 고용률 개선에도 청년(15~19세) 고용률과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뒷걸음질 치는 양상(樣相)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6,000달러 중반을 넘어 4만 달러를 향해 가고 있고 기술과 산업 경쟁력에서도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K팝을 중심으로 한 K-문화 역시 일시적 열풍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콘텐츠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경제 규모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사이의 간극(間隙)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외려 넓혀지고 '양극화(兩極化 | Polarization)'만 고착화(固着化)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 산하 기관인 국가데이터연구원이 지난 3월 5일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5' 제1차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고립감 지표가 더 악화(惡化)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삶의 질 2025'는 우리 사회 삶의 질과 성장기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고용·임금 등 11개 영역, 71개 지표의 시계열 변화를 통해 삶의 질 현황을 진단했다. 작년 12월 업데이트된 52개 지표 가운데 개선은 29개, 악화는 15개로 집계됐다. 다만 지표마다 조사 주기가 달라 고용률·여가만족도 등 11개는 2025년 최신자료이고, 자살률·비만율·빈곤율 등 대부분은 2024년 확정 자료다. 가장 이례적인 지표는 부정 정서다. 2024년 기준으로 우울감과 걱정 정도를 0~10점으로 측정하는 부정 정서가 3.8점으로 전년도 3.1점 대비 0.7점 급등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4.0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부정 정서만 뛰어올랐다는 점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긍정 지표는 제자리인데 내면의 심리적 불안만 팬데믹 수준으로 복귀한 셈이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직의 부정 정서가 4.3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년 대비 상승 폭(1.2점)도 가장 컸다.

무엇보다 2024년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6.4점으로 전년도 동일했다. 삶의 만족도는 2020년 6.0점에서 2022년 6.5점까지 상승했지만 2023년 6.4점으로 소폭 하락한 이후 2년째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제 비교에서도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세계행복보고서' 기준으로 최근 3년간(2022~2024년) 평균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6.04점으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3위에 그쳤다. 연령대별로 보면 특히 40대에서 삶의 질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전체 국민 삶의 만족도는 전년도와 같았지만 40대는 0.2점 하락했다. 건강 지표에서도 악화 흐름이 확인됐다. 2024년 40대 미만율은 44.1%로 전년도보다 6.4%포인트 급증해 전체 국민 평균 미만율 38.1%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한국인들의 우울과 걱정 정도를 보여주는 부정 점수는 3년 만에 다시 낮아졌다. 우울·걱정 지수는 2021~2023년 3.3→2023년 3.1)하다 다시 크게 상승했다. 2024년 자살자 수는 1만 4,872명으로 집계됐다. 자살률은 2011년 31.7명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13년 만에 최고로 높아졌고 자살률 증가 폭도 다른 연령대보다 컸다. 2024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9.1명까지 올랐다. 전년 대비 1.8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40대에서 전년 대비 4.7명 증가해 전체 연령대의 평균 증가 폭 1.8명을 크게 상회(上廻)했다. 특히 40대 남성 자살률은 2023년 43.0명에서 2024년 51.1명으로 8.1명 늘었다. 성·연령대별 통틀어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전체적으로도 남성 자살률은 같은 기간 38.3명에서 41.8명으로 상승했다. 여성은 16.5명에서 16.6명으로 거의 변동 없었다.

우울, 자살률, 취업률, 빈곤, 사회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줄줄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종합적인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OECD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유년 시절부터 과열 입시에 시달리고 학교 졸업 후엔 극심한 취업 경쟁, 중장년이 되면 집값과 자녀 부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우리의 삶이다. 노년에도 경제적 여유가 없어 일을 놓지 못한다. 그야말로 고단한 한 국민들이다. 원인을 진단하고 생애 단계별 적절한 대책을 강구(講求)해야 한다.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0~10점으로 측정된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2020년 6.0점 이후 2022년 6.5점까지 점진적으로 올랐다. 하지만 2023년 6.4점으로 소폭 내렸고, 지난해도 같은 6.4점이란 점수를 보였다.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선 33위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 그리스, 헝가리, 콜롬비아, 포르투갈 정도다. 하위권 국가들 면면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매번 큰 변동이 없다. 영역별로 보면 우선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 2024년 15.3%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2011년 18.5%를 정점으로 줄어들어 2021~2023년 15%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23년 기준 미국(18.1%), 일본(15.4%)보다 낮지만, 영국(12.6%), 독일(11.6%), 프랑스(8.7%)보다 높다. 특히 한국은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초고령화에 따른 1,000만 노인 사회에 들어서면서 고령층 빈곤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당면 현안 과제다. 1인당 국민총소득(실질구매력)은 2024년 4,381만 원으로 전년 4,235만 원보다 3.5%(146만 원) 늘었다. 국민총소득은 경제성장률에 정제된 2017년 이후 증가율이 낮았다. 2022년에는 0.3% 줄어 뒷걸음질 쳤다. 그러다가 2023년부터 다시 증가했다.

사회적 고립도는 2025년 33.0%로 2023년과 같은 수준으로 정체됐다. 20% 후반대였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다. 고립도는 남자(35.7%)가 여자(30.5%)보다 높았다. 2023년과 비교해 남자는 0.5%포인트 늘었으나 여자는 0.5%포인트 줄었다. 연령대 중에서는 50대 고립도가 37.2%로 2023년보다 2.2%포인트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났던 동호회, 시민단체, 지역사회 모임 등 사회단체 참여율도 2024년 52.3%로 전년 58.2%보다 5.9%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52.3%), 40대(52.6%)가 전년보다 8~9%포인트 줄었다.

우울, 자살률, 취업률, 빈곤, 사회 신뢰를 보여주는 각종 지표가 줄줄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률은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2024년엔 인구 10만 명당 29.1명까지 올랐다. 전년 대비 1.8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더욱이 역대 최고치였던 2011년 이후 가장 높았는데 성별 차이도 컸다는 게 특징이다. 남자 자살률(41.8명)이 여자(16.6명)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자살률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압도적 1위다.

국가데이터처에 의하면 대부분 국가는 10명 전후라고 한다. 해외에선 한류 열풍으로 한국의 풍요와 낭만을 동경하는데 정작 한국인은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방증(傍證)이다. 더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2023년까지 3년 연속 올랐는데 2024년 다시 꺾였다. 정부, 국회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3년 연속 50% 아래에 있다. 상대적 빈곤율이 5년 만에 최고로 오른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 편중된 부동산 가격 상승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와 '사

회적 신뢰도', '국가 자부심'이 연간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 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역대 최저치였다. 지난 3월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사회통합 실태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통합 인식 정도' '사회 신뢰 수준'은 10점 만점에 각각 4.87점과 5.70를 기록해 역대 12년간의 조사 중 가장 높았다. 주위로부터 정신·물질적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적 지지(2025년 6.39점)'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2014년 6.05점 → 2025년 6.63점)', '행복(2014년 6.05점 → 2025년 7.01점)'도 역대 최고점이었다. '국가 자부심'도 4점 만점에 3.03점으로 처음 3점을 넘어섰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75세 이하 국민 3,009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대면 면접을 통해 이뤄졌다고 한다. 사회 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2021년 이후 계속 하락을 해오다 2025년엔 역대 최저인 2.57점(4점 만점)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일생 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수치화한 것으로 국민들은 계층 상승에 대한 희망이 더 꺾이고 있다고 본다는 얘기다.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의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에 의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5조에 의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의 구성진 곳을 살펴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다. 자산과 소득 양극화는 더 심화할 개연성이 크다. 격차를 좁힐 면밀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쉽게 높아지지 않는다. 사회 구조개혁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과도한 경쟁 문화,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그릇된 사회 분위기는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가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속도보다 방향이 혁신보다 공존이 AI(인공지능 대 전환 | AI Transformation) 시대를 견인하는 시대정신이다. 포용과 배려가 넘쳐나야만 우리 사회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음을 각별 유념하고, 특히 공동체의 무게를 온몸으로 짚어온 '김 세태라' 불리는 40대, 남성의 사회적·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야 한다.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지사조합협의회 회장·전, 소방준감) 한편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와 '사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임산부 교통비 둘째부터 다자녀가구 전폭 지원

신청·사용기간 확대해 편의성 ↑, 7월부터 '3개월 이상 거주' 요건 및 사용지역 조정해 실효성 ↑ 다자녀일수록 더 큰 혜택반도락



서울 합계출산율은 0.63명(2023 인구동향조사, 통계청)으로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둘째 이상 출산 비중은 32.7%로 전국 평균(39.8%)보다 낮아 '다자녀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서울시가 다둥이 양육 가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를 전면 개편,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청 및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산모와 출산 가정이 보다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우처 사용기한도 출산 후 1년까지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신청 시점의 서울 거주 여부만 확인했으나 오는 7.1(수)부터는 두 사업 모두 신청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새 기준을 마련한다. 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유류비 사용 시)' 배우처도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시는 새 거주기간 기준이 마련돼 위장정입 등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제도의 형평성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참새 탐조 여행버스 무료 운행

참새 먹이주기·열쇠고리 만들기·간식 주기 체험도



울산시는 오는 3월 20일 '세계 참새의 날'을 맞아 '참새 탐조 여행버스'를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운행한다고 밝혔다. 세계 참새의 날(World Sparrow Day)은 도시 개발과 서식지 감소로 전 세계적으로 참새 개체 수가 줄어드는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심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참새의 생태를 살펴보고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사)태화강생태관광협회 주관으로 태화강 하구, 동천, 선바위 등의 참새 서

식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하천 수풀이나 나뭇가지 주변에서 먹이활동과 목욕을 하는 참새들을 관찰하며 개체 수를 확인하는 탐조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 자연환경해설사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넓은 지역에서 서식하는 조류인 참새의 생태와 최근 개체 수 감소 원인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 다양한 체험 활동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해 온 간식(곡물)로 참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한다. 탐조를 마칠 때는 참새 모양 열쇠고리 예쁜 참새를 예쁘게 색칠해서 기념으로 만들어보는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참새 탐조 여행버스는 태화강 국가정원1부설주차장에서 출발해 하루 두 차례 오전 9시 30분과 오후 1시 30분에 각각 운행된다. 탐방은 약 3시간 정도 소요된다.

세계타임즈 www.thesegeye.com
7차제본: news@thesegey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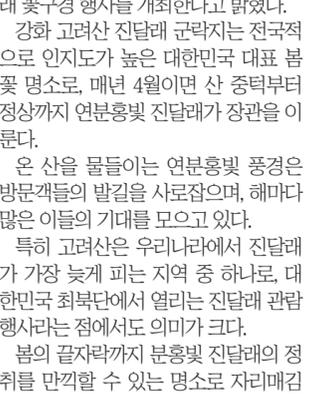
- 회장 이채봉 ● 발행인 심규영 ● 편집인 이채봉
- 편집국장 이상성 ● 마케팅본부장 이현진 ● 인쇄인 디엠코리아(주)
- 편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62길 13층 (남신빌딩)

편집국/기사제보: 1661-8385 등록: 2007년 3월 22일 창간: 4월 23일
광고국: 02)717-7272 등록번호: 서울 가 50106
FAX: 02)717-7273 구독료: 한달 15,000원 한부 1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강화군, 고려산 진달래 꽃구경 행사 앞두고 상춘객 맞이 준비 박차

오는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개최 임시주차장, 먹거리 부스, 전담콜센터 등 방문객 편의 지원



오랜지, 고려 홍릉 등 다양한 역사 유적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강화군은 행사 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1일부터 19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



로 지정해 안전관리와 방문객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행사 기간에는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등산로 진입 차량을 제한해 방문객들의 안전한 관람을 지원한다.

또한 임시 화장실 설치와 진달래 전담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방문객 편의를 높일 예정이며, 주요 등산로 주변에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먹거리 부스도 마련된다. 아울러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터미널에서 고려산을 연결하는 임시 버스노선을 운영하고, 임시주차장 운영과 등산로 진입 구간 교통 통제를 병행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로 관광객 편의의 증진과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산불 예방 대책을 수립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등산로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봄의 설렘을 안고 고려산을 찾은 방문객들이 소중한 추억을 담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하린 기자